

기혼취업여성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박 정 윤(중앙대 교수) · 장 영 은(중앙대 부교수)

본 연구는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들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관련변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291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기혼취업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양육 스트레스의 정도나 인구학적인 변인의 영향력만을 고찰하고 있으나 양육스트레스는 객관적인 양육부담보다는 양육자 자신의 개인 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영향력을 고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혼취업여성의 개인성격 변인이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실질적으로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변인을 알아봄으로서 기혼취업여성이 양육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에 관련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혼취업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마지막으로 일반적 스트레스가 높았다.

둘째,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 성격, 아동기질, 가족지지, 인구학적 변인이 모두 관련변인인 것으로 밝혀졌고 그 가운데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아동기질의 대부분의 하위변인, 가족지지, 그리고 어머니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보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인 지금까지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어머니의 성격의 영향력이 자녀기질과 가족지지 그리고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을 모두 포함한 예측모델에서도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특히 어머니의 신경증, 외향적, 성실성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이었다. 이에 기혼취업여성의 성격특성은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취업모 스스로가 자신의 성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셋째, 자녀의 기질변인의 대부분 하위요인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그 중 자녀의 쾌활성, 융통성,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지지는 양육스트레스의 유의한 예측변인이었으며, 반면, 결혼만족도는 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기혼취업여성 스스로가 본인에 대한 성격과 자녀의 기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부모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에 있어서 양육자 성격특성을 파악하고 자녀 기질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하고 한국적 현실과 특성을 반영하여 양육스트레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양육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가족의 지지 역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경감에 효과적인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은 취업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상호협조와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